

No.20161012-001

제목: 라스트 레시피 - '기린의 혀'의 기억

저자:

페이지수: 333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05일



<내용소개>

2017년 가을,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나리 주연으로 영화 개봉 확정!

'기린의 혀'를 지닌 요리사들과 전설의 레시피를 통해 요리인의 신념을 다룬 미스터리

소리를 들으면 무슨 음식인지 정확히 알아 맞추는 절대 음감처럼, 한 번 먹어본 음식의 맛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사람. 이 소설에는 절대미각 '기린의 혀'를 가진 두 요리사가 등장한다.

2014년의 일본, 주인공 '사사키 미츠루'는 절대 미각을 활용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먹고 싶은 요리를 재현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인생 최후의 요리 청부인'이다. 먹어본 맛은 물론 직접 먹어본 적 없는 요리까지도 제대로 완성해내는 천재지만, 요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수수께끼에 싸인 중국인의 의뢰가 들어온다. 베이징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신청인의 정체는 '요우 세이메이'라는 고령의 노인이었다. 요우 선생은, 사사키에게 <만한전석>과 <대일본식채전석>의 이야기를 꺼낸다. 청나라 황제가 궁중요리사에게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만한전석은 중국 전역에서 모은 진귀한 최고급 식재료만 활용하며 식사에만 3일이 걸린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스 요리다. 일본은 그 명성을 넘어서고자 일본천황의 요리사를 만주로 불러내 만한전석의 일본판, 대일본식채전석을 완성하게 하였다. 요우 선생은 아직 건강할 때 대일본식채전석을 맛보기 위해 사사키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요리 가짓수가 112개나 되는 데다가 책 4권 분량의 레시피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식당을 개업했다가 잔뜩 빚을 진 상태였던 사사키는 고민 끝에 결국 5천 만 엔이나 걸린 요우 선생의 의뢰를 수락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사사키는 1930~40년대, 대일본식채전석을 완성해낸 중심 인물이 기린의 혀를 지닌 요리사 '야마가타 나오타로'라는 것을 알아낸다. 요리를 통해 세계를 바꾸고 싶었던 야마가타가 목숨을 걸고 <대일본식채전석>에 감춘 비밀은 무엇일까? 사사키는 약 80년 전 레시피의 행방을 좇으면서 그 안에 중대한 역사적 음모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만주사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미스터리가 펼쳐진다. 과거와 현재의 두 주인공 시점을 오가며 교차 진행돼, 양 쪽의 사건을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작가는 후지테레비 <요리의 철인> 프로그램을 연출할 때 이 작품의 영감

을 얻었으며 요리보다 '요리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정신과 신념을 다루고자 했다고 한다. 결말을 궁금하게 하는 흥미진진함과 감동을 선사하는 이 소설은 요리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인 니노미야 카즈나리 주연의 영화화가 결정되어 내년 가을 개봉될 예정이다.

<저자소개>

다나카 케이치

1962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릿쿄대학 졸업 후, TV 방송 업계로 진출하여 후지테레비 <요리의 철인>, <햄머 프라이스>, <퀴즈\$밀리어네어>와 테레비아사히 <사랑의 에이프런>등 다수의 TV 프로그램 연출과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일그러진 달팽이》, 《용궁의 열쇠》가 있다.

No.20161012-002

제목: 내 옆의 왕국

저자: 나나카와 카난

페이지수: 308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21일



<내용소개>

현실과 꿈, 두 곳의 나라를 오가며 펼쳐지는 장편 미스터리 소설

한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꿈과 상상의 산물을 현실에 옮겨놓은 '테마파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 받는 놀이 장소 중 하나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을 주는 놀이 기구뿐 아니라 홀로그램, 증강현실, 4D 등의 기술을 이용해 마치 어느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인공 안나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앞둔 만18세의 소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고 거짓말과 비겁한 행동을 제일 싫어한다. 어느 어두운 밤길, 술에 취한 남자에게 괴롭힘 당하는 여자를 도우려 평소 같고 닦은 가라데 실력을 발휘하면서 알게 된 유우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유우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병원에서 연수 중이다. 미스터리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안나와 유우는 둘 사이의 거리도 좁히고 더 가까워질 겸, 일본 최대 규모의 테마 파크 '해피 판타지아'로 데이트를 나선다. 동서고금의 판타지 소설과 만화를 모티브로 한 종합 레저 리조트로, 이야기의 디테일을 살린 배경과 장식 그리고 아름다운 어트랙션 무대 장치들은 다른 테마파크와 차원이 다를 정도다.

입장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보던 중 "ENTER TO PLAN DO SEE"라는 문구가 쓰인 곳으로 들어가게 된 안나와 유우는 별안간 각각 다른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일명 꿈의 나라로 들어서게 된 안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해피 퍼피'라는 캐릭터를 돕는 기사인 곰 캐릭터 '에드거'와 만난 것이다. 만화 주인공인 해피 퍼피는 의인화된 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까지 대 성공을 거두며 해피 판타지아의 심볼이 되었다. 안나는 최고의 히어로 해피 퍼피의 명령을 받아 여정에 나선다. 에너지, 말장난, 숫자놀이, 체스, 마방진, 퍼즐 등 다양한 난관을 헤쳐나가며 악당들의 추격을 피해 동료들과 동쪽 끝의 나라를 찾아 간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유우가 갑자기 사라진 안나를 찾아 헤매는 동시에 테마파크 안에서 발생한 밀살살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두 세계의 사건은 별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안나는 해피 퍼피의 명령을 무사히 수행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밀살사건의 범인과 그 진상은 무엇일까?

만들어진 세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찌르는 현실 파트 그리고 과학을 넘어선 마법이 준비한 꿈의

파트가 대비, 대응, 대칭 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청춘 모험과 판타지 요소가 듬뿍 가미된 이색 추리소설로 추천한다.

<저자소개>

나나카와 카난

2008년 《일곱 개의 바다를 비추는 별》로 제18회 아유카와 데쓰야 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10년에 간행한 두 번째 작품 《알바트로스는 날지 못한다》는 제64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장편·연작단편집부문) 후보에 올랐던 것을 비롯해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本格 미스터리 베스트10〉 국내 부문 베스트셀러에 랭크 되었다. 본 작품은 2012년 나왔던 선보였던 세 번째 작품 《환청의 숲》이후 4년 만의 신간이다.

No.20161012-003

제목: 3분 마음 회복: 침울하고 자신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3분 전략

저자: 사사키 켄지

페이지수: 200

장르: 자기계발, 심리

출간일: 2016년 09월 28일



<내용소개>

침울하고 괴로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 자기자신의 마음을 레벨업하는 비결

인생이란 참 신기하다. 어떨 때는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운이 뒤따르고 기회들이 저절로 달라붙는 것처럼 호조 중의 호조를 겪는다.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이뤄지는 시기가 있다. 반면 모든 것이 갑자기 꽉 막힌 듯 풀리지 않는 시기도 찾아온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본전도 건질 수 없고, 좋은 일은 다 남들 차지인 것만 같다. 별 탈 없이 순조롭게 되던 일도 안 된다. 만회하려 하면 초조함 때문인지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기 일쑤다. 유능하고 우수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도 이렇게 실패를 하고 슬럼프를 겪을 때에는 실망하고 좌절한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극복해 내는 것이다. 왜, 작년도 내년도 아닌 올해 이 순간 힘든 일이 찾아온 것일까? 심리 카운슬러로 활동해 온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기에 가장 좋은 찬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심리 카운슬링을 이용한 기법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사고방식을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을 단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말하며 7가지의 대표적인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대해 총 32가지의 조언을 실어두었다. 각 조언의 끝부분에는 핵심 포인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각 장 끝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3분 카운슬링 코너가 있어 이해도를 높여주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본문의 조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저자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부족할 때에는 자기를 깎아 내리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 의기소침할 때에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평가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애매한 관계 때문에 고민이라면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지부터 정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곤란한 사람에게 휘둘러서 속으로 공공덜 때에는 문제를 자기 내부에서 외부로 고집어내는 연습을 권하고 있다.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그 상태를 강제종료 시키고 자기 상태를 가다듬는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이은 좌절에 지쳐 더 이상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좀 더 관대하게 볼 것을, 매너리즘의 늪에 빠졌다면 작은 소

망을 정하고 이뤄보려고 하거나 정체불명의 재능을 찾아 나서기 보다 눈 앞의 일에 전념할 것을 제안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며 좌절을 넘어서도록 단련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정신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이야말로 더 강해질 수 있는 찬스

제 1장: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을 때 - 새로운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제 2장: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하는 1순위가 된다

제 3장: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 한 번 더 상대방을 믿어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받아 들여준다

제 4장: 곤란한 상대에게 휘둘려 버렸을 때 - 문제를 내부에서 외부로 꺼내본다

제 5장: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을 때 - 지금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레벨업 한다

제 6장: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을 때 - 자신을 조금 관대하게 바라본다

제 7장: 매일 매너리즘 속으로 문혀 들어가는 것 같을 때 - 스스로에게 내일의 용기를 준다

마치며: 더 충분히 생각한다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저자소개>

사사키 켄지

심리 카운슬러. 주식회사 대표 이사.

국제기독교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NTT에서 법인영업과 광고기획을 경험하였다. 그 뒤 고향인 센다이로 돌아와 스포츠클럽 경영에 종사하였다. 기업을 경영하며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심리카운슬링을 배운 뒤, 심리요법과 심리학의 연구와 실천에 몰두해 왔다. 그 성과를 집약한 첫 저서 《미루기 병 고치기》는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현재는 샐러리맨의 경험과 경영자의 실적을 살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막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겪는 여러 심리적 문제의 해소를 주제로 매일 매거진 발행/ 강연과 세미나/ 카운슬링/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의욕' 있는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책》, 《업무 고민을 끌고 가지 않는 기술》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012-004

제목: 간단하게 살아라: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하는 미니멀리즘 라이프

저자: 차쿠마

페이지수: 256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6년 06월 22일



<내용소개>

자신만의 미니멀리즘 생활을 실천 중인 40대 주부가 '간단하게 살기' 비결을 공개한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은 비워낸다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이미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고유한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초반엔 갖고 있는 물건을 버리라는 것 위주였지만 점차 '무조건 버리기'에서 탈피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물건과 추상적인 생각의 영역을 모두 아울러, 자기에 가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남기기로 진화한 것이다. 한 발 앞서 그런 생활을 실천해 온 사람들은 이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미니멀리즘 방식을 공유하고 조언해 준다.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 중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실천 과정에서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할 지경이다.

'차쿠마'는 저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이다. 3인 가족의 40대 후반의 주부로 알려진 그녀는,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면서 월간 페이지뷰수 50만이 넘는 인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알아두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생각의 변화들을 본인의 경험과 엮어 이야기한다. 그녀는 시중에 미니멀리스트들을 위한 편리하고 심플한 물건들이 많아도 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 지부터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최근 출간된 미니멀리즘 관련 서적은 주로 패션 및 수납 기술을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여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이 책은 심플 라이프를 위해 가져야 할 사고법을 줄글 형태로 풀어놓았다. 구체적인 순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마음 가짐을 설명하는 식이다. 본문 내용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방식 / 집안일 / 시간 씹씹이 / 인간관계 / 집안 곳곳의 여러 물건을 줄이는 방법 / 의류를 줄이는 방법 / 청소 및 세탁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편에서 다양한 팁을 전수한다. 마지막 장에는 직접 '가지지 않는 생활'을 해 본 소감과 조언을 담았다. 반성은 1분 이내, 막연한 불안은 버린다, 쇼핑 시간은 해매지 않고 신속하게 등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고민들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느낌이다.

모든 미니멀리스트는 집안일과 가계, 정리 수납 등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면 좀 더 살기 편해진

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 맞는 정도와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일이다. 이 책은 자신의 수준과 이미 틀처럼 정해져 있는 미니멀리즘 라이프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사고를 심플하게
- 제 2장: 가사를 심플하게
- 제 3장: 시간을 심플하게
- 제 4장: 인간관계를 심플하게
- 제 5장: '줄이다'를 심플하게
- 제 6장: '입다'를 심플하게
- 제 7장: 청소세탁을 심플하게
- 제 8장: 가지지 않는 생활을 해 봤더니

<저자소개>

차쿠마

40대 후반의 주부. 남편과 대학생 아들이 있는 3인 가족. 2008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으며 2015년 1월 현재 블로그 <간단하게 살아라>를 시작, 월간 PV50만의 인기 블로그로 등극했다.

No.20161012-005

제목: <일류의 존재감>을 지닌 사람의 규칙

저자: 마루야마 유리에

페이지수: 230

장르: 처세

출간일: 2015년 04월 28일



<내용소개>

일류 경영간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Executive Presence'를 가르치는 입문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크건 작건 협업을 거친다.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할 때도 많다.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호감 가는 표정으로 자신 있게 주장을 제시하는 사람 중 누가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다.

이 책의 저자는 '존재감 컨설턴트'라는 생소한 직업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지닌 분위기와 존재감 연출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녀는 성공하고 싶다면 'Executive Presence'를 갖추라고 말한다. 사회적 지위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가져야 할 품격, 분위기, 아우라를 지니라는 뜻이다.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외자계 컨설팅 펌이나 금융기관, IT기업에서는 경영간부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직급이나 역할에 어울리는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외로 매니지먼트, 교섭, 발표 등 중요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저자는 다수의 호텔과 비즈니스 클럽의 요직을 역임하며 만난 일류 재계 인사들에게 배운 처세술을 이 책에 담아내어 독자들이 <일류의 존재감을 지닌 사람들의 규칙>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맨 처음 알아둬야 할 것은 좋은 인상을 만들어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턱의 각도를 바꾸고 미소로 악센트를 주는 등 표정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탁하는 방식, 명함 교환 방식, 보조해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됨됨이의 크기를 결정한다. 일류가 되려면 회식 자리와 접대에도 신경 써야 한다. 비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상대의 취향에 맞는 장소를 정해야 하며, 회식 후에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드시 답례 인사를 한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품격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외면을 가꾸는 것은 곧 내면 가꾸기와 연결되므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복장과 소지품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스피치를 할 때 효과적인 제스처 사용 방법, 타인의 발표를 공부할 것, 심플한 자기소개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 등 실용적인 팁들을 가득 소개한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존재감을 발하는 처세술은 노력을 통해 몸에 익힐 수 있다. 이 책은 그 처세술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알려줘 유용하다. 막연하게 성공을 꿈꾸며 자신

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 리더로서 타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 자기자신의 부족한 면을 알고 싶은 경영간부와 경영자,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거나 세일즈를 펼치는 직무 종사자들에게 추천한다.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일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 제 2장: 그릇의 크기는 <처세>로 결정된다
- 제 3장: 일류가 상식으로 알아야 할 회식 및 접대 규칙
- 제 4장: 일류는 <성공한 자의 의복>을 어울리게 입는다
- 제 5장: 왜 일류의 <스피치>는 마음에 남는 것일까?

<저자소개>

마루야마 유리에

일본 최초의 프레즌스(존재감, 분위기) 컨설턴트. <Attainments> 대표.

대학 졸업 후, 일류 재계인들에게 사랑받은 호텔 세이요 긴자, 호텔 오크라 고베 및 국내의 이그제큐티브 대상 비즈니스 클럽 경영회사에서 회장비서를 비롯한 요직을 역임하였다. 일본 유수의 비즈니스 클럽인 '아크 힐즈(Ark Hills) 클럽' 설립에 중심멤버로 기획에 참여했다. 수천 명의 재계인과 교류하며 알아낸 <초일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하고, 일류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행동방식과 처세술 체계화, 경영간부 대상 연수 및 강연, 컨설팅을 하고 있다. 대형 전기통신사업 회사, 외자계 컨설팅 펌, 생명보험 회사 등의 클라이언트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No.201610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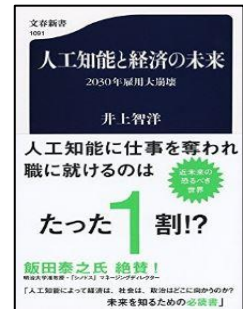
제목: 인공지능과 경제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의 신 경제 입문서

저자: 이노우에 토모히로

페이지수: 256

장르: 과학,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7월 21일



<내용소개>

범용인공지능이 세상에 등장할 2030년, 어떤 경제적 변화가 찾아올지 예측해보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다. 소모적인 노동에서 해방될 장밋빛 미래와 동시에 인간이 설 자리를 잃은 잿빛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안이 통과되며, 인간과 로봇의 일자리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맥도날드의 전 CEO는 “시급 15달러를 줄 바에는 로봇을 쓰는 편이 더 싸다”고 말했다. 아디다스는 아시아 노동자 임금보다 독일 로봇 공장의 운영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24년만에 제조공장을 옮겼다.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한 영역에 특화되어 과제를 수행하지만, 2030년경에는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은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범용인공지능’이 경제 구조에 초래할 변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형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입부에는 인류와 기계의 대립과 관련된 최근의 화제들을 다룬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며 생겨날 기술적 실업, SF속에서 현실화 된 것, 인간 지성을 넘어서는 AI가 나타날 2045년 등 흥미로운 얘기들로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어서 딥러닝의 성과와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세계의 경쟁, 로봇의 신체 감각 등 30년 뒤에는 무엇이 가능해지고 무엇이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을지 전망해본다.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기술적 실업을 다룬 부분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특화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경제성장을 촉진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2030년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 1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2의 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범용인공지능을 최초로 개발 및 도입한 국가가 패권을 질 것이 분명하다. 본문에서는 선점 국가와 후발 국가 사이에 생겨날 경제 성장 차이를 예측해보고 있다. 저자는 많은 노동이 사라질 미래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일률 지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풍족한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를 구제해 줄 장치가 될 것이며 그 재원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 간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미래 상황을 과학기술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새롭게 마주하게 될 사회상과 더불어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계기로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제도까지 다룬 점이 인상적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신 경제 입문서'로 읽어보길 바란다.

<목차소개>

- 제 1장: 인류 vs. 기계
- 제 2장: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화할까?
- 제 3장: 이노베이션 · 경제성장 · 기술적 실업
- 제 4장: 제2의 대 분기 - 제4차 산업혁명 후의 경제
- 제 5장: 왜 인공지능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저자소개>

이노우에 토모히로

고마자와대학 경제학부 강사. 게이오기주쿠대학 환경정보학부 졸업,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전공은 거시경제학, 화폐경제이론, 성장이론이다.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학회 발표와 정부 연구회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고, AI사회론연구회의 공동발기인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새로운 Java 교과서》, 공저 《Readings 정치경제학에 대한 수리적 접근》등이 있다.

No.20161012-007

제목: 잡담의 전략: 6단계 잡담 피라미드로 구성하는 성공적인 잡담의 기술

저자: 타니하라 마코토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9월 22일



<내용소개>

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잡담'을 구성하는 6단계 전략

잡담이란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주고 받는 인사 전후에 덧붙여지는 사소한 대화다. 본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내용들이라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더욱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잡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기초 과정이자 예상치 못했던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직업은 대인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다. 변호사는 말을 통해 설득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저자 본인도 잡담에 그리 능한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훈련하고 구사하면서 전략적인 잡담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오고 가는 잡담은 분명 친구끼리 나누는 사소한 대화와는 차별되며, 나름의 이론이 있고 성공 팁이 있다. 저자는 그 비결을 이 책을 통해 공개한다.

우선,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인 잡담에는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상황이 닥쳐서야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시간만 흘러 보낼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호의를 획득하기, 약간 다르게 말하며 진심을 떠보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등의 목적을 설정해두면 잡담에 의미가 생겨난다. 심리학 분야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응용하여, 저자는 잡담 6단계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넓은 밑바닥에서 좁은 상단으로, <잡담하는 이유 → 자기자신을 안다 → 상대방을 안다 → 호감을 얻는다 → 화제 → 어휘>순서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도 이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왜 전략적으로 잡담을 해야 하는지, 잡담에 서툰 것 같은 자신이 어느 타입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잡담이 오가는 시간을 호감을 얻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을 풀어낸다.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에 좌우되지 않는,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말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화제 선정 방식과 말투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알려준다. 마지막에는 목적 별 대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잡담은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6단계 전략을 활용하여 사람과 돈, 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성과를 경험해보자.

<목차소개>

- 제 1장: 비즈니스 잡담은 <전략적>이어야만 한다
- 제 2장: 당신은 어떤 타입? 잡담이 서툰 4가지 타입
- 제 3장: 잡담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을 축으로 구성한다
- 제 4장: 비즈니스 잡담이야말로 <호감 여부>로 정해진다
- 제 5장: 어떤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 실수하지 않는 화제> 정하는 방식
- 제 6장: 세부사항에 뜻이 숨어 있는 말투에 조심하자
- 제 7장: 실천 시뮬레이션으로 잡담 목적을 달성하자

<저자소개>

타니하라 마코토

변호사. 1968 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91 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기업 법무, 사업재생, 교통사고, 부동산 문제 등의 안건 및 사건을 충분히 단련한 잡담 능력·질문 능력·교섭 능력·의논 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해결로 이끌었다. 현재 미라이종합법률사무소 대표 파트너이며, TV 프로그램 <보도 스테이션><슈퍼 J 채널>등의 해설로도 활약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변호사가 가르쳐주는 마음 약한 당신의 교섭기술》, 《사람을 움직이는 질문 능력》, 《지식 제로, 비즈니스 교섭 기술》, 《변호사의 논리적인 대화 기술》, 《<나랑 일, 어느 쪽이 중요해?>는 왜 틀렸을까》등이 있다.

No.20161012-008

제목: 니시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생리학자가 알려주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50가지 방법

저자: 니시다 야스히로

페이지수: 239

장르: 건강/과학

출간일: 2015년 08월 04일



<내용소개>

생리학자와의 건강 Q&A!

10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50가지 방법

요즘에는 건강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매우 많다. TV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아침부터 심야까지 채널 별로 교양 프로그램마다 건강 관련 팁을 전한다. 혈당치를 낮추는 데 좋은 야채와 특식, 허리와 골반의 뒤틀림을 교정하는 운동 자세, 먹기만 해도 체중을 줄이는 과일 식초 등 온갖 새로운 내용과 체험자의 수기가 흘러나온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 때 유행했던 1일 1식과 간헐적 단식, 요즘 주목 받는 고지방저탄수 식단 중 어느 것이 내게 더 맞는지, 정말 내게도 좋을지 알 수 없다.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생리학자로, 인간 신체와 삶 그리고 생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법한 여러 궁금증 50가지를 선정해 일러스트와 함께 Q&A형식으로 알려준다. 본래 인간은 유전적으로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타고난 수명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1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봤을 내용을 다룬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데 체내 시계라는 게 정말 있는지, 세포란 무엇인지, 식사는 왜 1일 3회가 좋은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장의 주제는 성장이다. 편식 습관은 꼭 어릴 때 고쳐야 하는지, 자기 전에는 몇 시까지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 부모에게 유용할 조언을 준다. 3장에서는 식사와 영양에 관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데, 몸에 좋고 나쁜 것은 몸이 더 잘 알고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장에서는 노화방지 및 아름다움과 직결되는 호흡 및 혈액 순환 잘 되는 몸, 5장에서는 골격근과 에너지를 이용해 운동하는 몸에 대해 이야기한다. 6장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생리학적 지식을, 마지막 7장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궁금증에 답한다. 모든 항목은 2~6페이지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러스트를 삽입해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건강이란 완벽한 상태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체에 결점이 있다고 완벽하게 바뀌내려 하는 것이 아닌, 결점이 있어도 몸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건강이다. 이 책은 상식적으로 옳다고 알려졌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정정해준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50개의 힌트를 통해 유전자에 설정된 125세까지 사는 방법을 이해해보자.

<목차소개>

Chapter 1. 몸에 관한 소박한 의문

Chapter 2. 성장하는 몸 - 0세부터의 생리학

Chapter 3. 식사와 영양 - 몸에 좋은 음식물은 몸이 가르쳐 준다

Chapter 4. 순환하는 몸 - 젊음과 아름다움의 힌트

Chapter 5. 움직이는 몸 - 골격근과 에너지

Chapter 6. 병·컨디션 난조를 다루는 방법 - 일상의 컨디션 난조를 생리학으로 해결

Chapter 7. 노화와 수명 - 125세까지 사는 방법

<저자소개>

니시다 야스히로

방위외과대학교 생리학강좌 교수. 순환생리학자. 의학박사.

1953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으며 미야자키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를 졸업하였다. 논문 및 학회 발표, 강연 등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일본병태생리학회 이사, 일본 생리학회학술잡지 편집위원.

No.20161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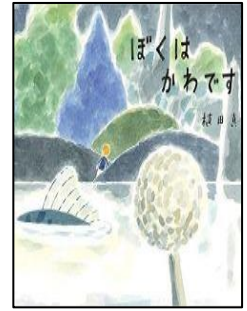
제목: 나는 강입니다

저자: 우에다 마코토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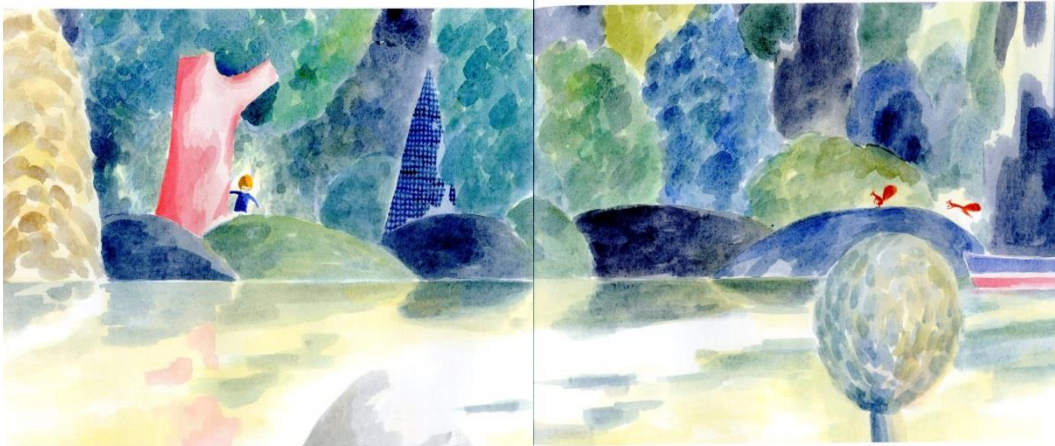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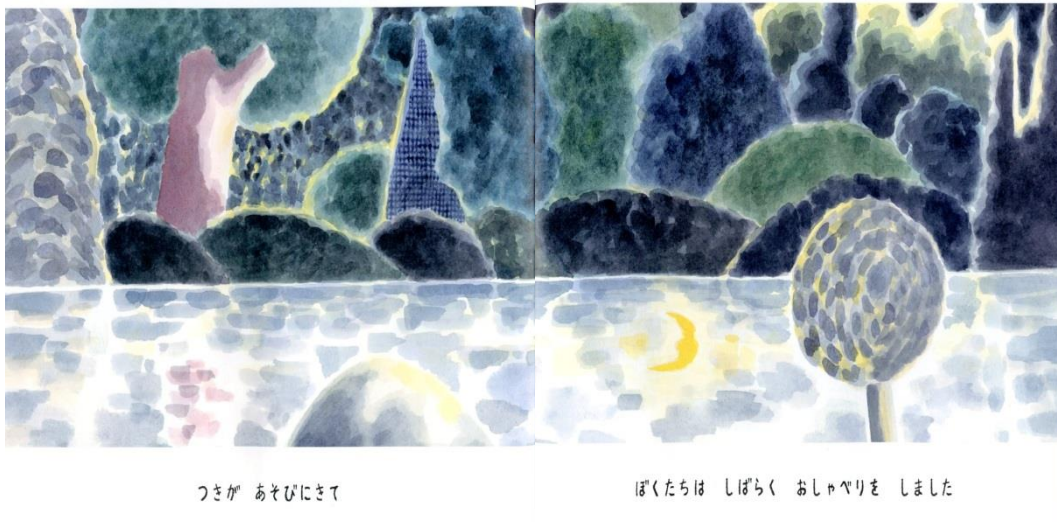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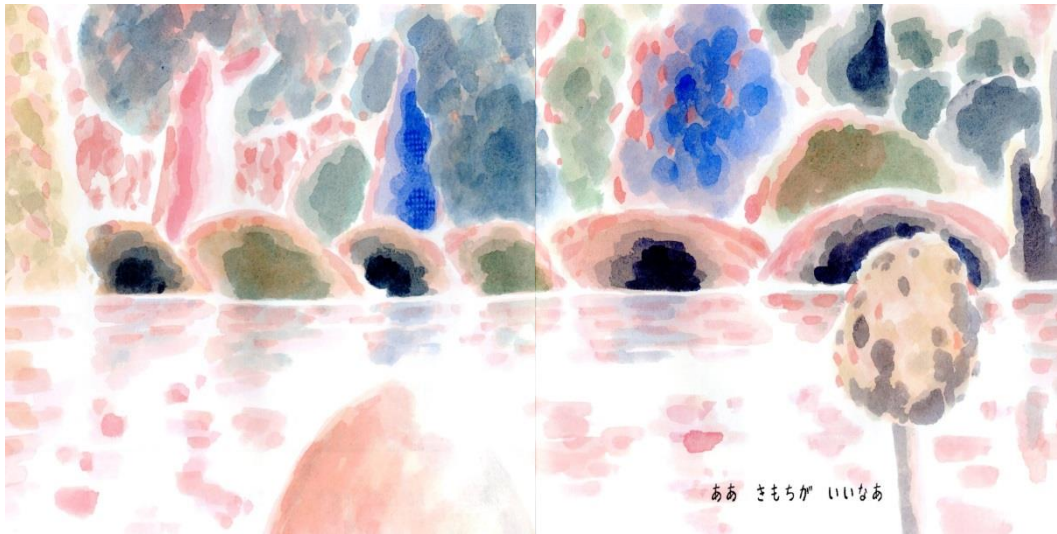
항상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강'의 하루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강'입니다. 배가 지나가고, 근처에 사는 소년이 강변으로 놀러 옵니다. 이번엔 작고 하얀 새들이 한 두 마리 날아와 노래를 부르더니 금세 숫자가 늘어나 시끌시끌해집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람쥐들이 짐을 들고 가다 강에 떨어뜨립니다. 물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짐을 꺼내주고, 다람쥐들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저녁 바람이 불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노을에 강이 잠시 붉게 물들다, 이윽고 어둠이 내려 달이 놀러 옵니다. 강물에 내려앉은 달과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지나갑니다.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우에다 마코토의 담백한 수채화 풍 일러스트가 이야기와 잘 어우러지며, 강물 흘러가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가 리듬감을 살려줍니다. 큰 사건 없이 흘러가는 강의 하루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별일 없이 똑 같은 보여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さんじょの しょうちゃんがきました



<저자소개>

우에다 마코토

1973 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그림책 《상상에 빠지는 스케치북》, 《마가렛과 크리스마스의 선물》(제 14 회 일본 그림책상 수상), 《마녀의 데이지》, 《용 눈의 눈물》, 《탕탕 여우 여우》, 《달이 가장 가까운 밤》, 《첼로 켜는 고슈》, 삽화 참여작은 《울 준비는 되어 있다》, 《오즈의 마법사》 등 다수가 있다.

No.20161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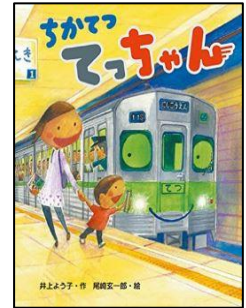
제목: 지하철 테츠

저자: 이노우에 요코(글), 오자키 겐이치로(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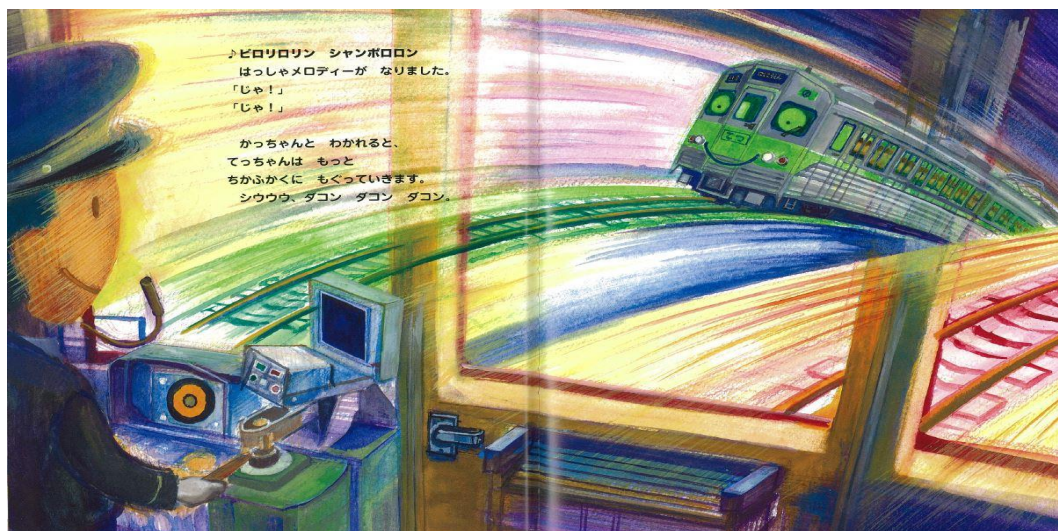
<내용소개>

일본에서 달리던 지하철 '테츠'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 활약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도시의 지하철 '테츠'는, 매일 수많은 고객을 태우고 땅 속을 열심히 달립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져 외로워 하던 중, 신형 차량이 등장하면서 테츠는 더 이상 지하철을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운전수의 선택을 받은 테츠는 항구로 이동합니다. 분해작업을 거쳐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일본과는 공기도 냄새도 다른 나라입니다. 테츠는 트레일러를 타고 이동한 차고지에서 사라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일본의 오래된 지하철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테츠도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힘껏 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하철 혹은 버스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기존에 쓰던 차량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책은 지하철 '테츠'의 시점에서 중고 지하철의 수출과 활약을 그렸습니다. 슬프게도 새 차에 밀려 나지만 금세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태워 나르며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달리는 지하철의 속도감 표현과 원색 위주의 그림이 이야기의 생기발랄함을 한층 북돋워줍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이노우에 요코(글)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으며, 시즈오카대학 졸업 후 동화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주요 작품으로는 《도깨비보다 힘센 아가씨》, 《바닷속 대탐험! 신카이 6500으로 가는 심해 여행》, 《힘내라 케로 패밀리!》, 《어딘가로 가는 버스》등이 있다.

오자키 겐이치로(그림)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예술대학 미술연구과 석사과정 유화 코스를 수료하였다. 현대미술과 그림책 제작, 유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아동 그림책 교실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